

기초수급자 적용 기준 완화

순창군, 수급자 신청가구 작년보다 46%늘어 · 신규 책정가구도 22% 증가

순창군이 기초수급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사각 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가구는 전년대비 151가구에서 284가구로 46% 증가하고, 신규책정가구도 84가구에서 108가구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적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실제로 올 10월부터 수급자가 일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급자가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받는다.

이외에도 순창군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번달 말까지 수선집수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긴급 대상자 8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가구별 긴급 애로사항을 반영,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한 바 있다.

군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순창군도 수급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0월말 기준 기초수급자 794가구로 28억여원을 집행했으며, 해산과 장애급여도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숲 잘 가꾸는 지자체’ 선정

숲가꾸기사업 최우수

임실군이 도내에서 숲을 잘 가꾸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숲가꾸기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숲가꾸기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학교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업현장 점검과 서류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상반기 조림사업과 하반기 숲가꾸기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임실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군은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림사업 380ha, 조림지 가꾸기 1,100ha, 어린나무등 숲가꾸기 210ha 등 총 1,690 ha의 산림사업을 추진했다. 이같은 숲가꾸기의 품질 향상



임실군이 숲을 잘 가꾸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심민 군수는 “이번 수상은 고품질의 숲을 가꾸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순창 장수 보건의료원 화합한마당 행사

제11회 임실 순창 장수 보건의료원 화합한마당 행사를 지난 17일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3개군 보건의료원

공직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

한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황숙주 순창군수, 장영수 장수군수와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도 보건의료 관련부서 관계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실순창장수 보건의료원 화합한마당은 2008년 장수군에서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으며 3개 지역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수군 이모씨는 “3개시군의 직원간에 보건의료행정 업무의 공감대를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어 뜻깊다”며 소감을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온 보건의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백세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순창 장수 보건의료원 화합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원시는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성료

춘향전 초코파이 · 춘향아로마 팔찌 등 수상

남원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최근 남원시청 강당에서 제2회 남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 사업은 남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및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수상작에는 특선에 춘향전 초코파이(소현진), 춘향아로마 팔찌(한현아), 목기아로마 향초세트(김영준)가 수상했으며, 장려상에는 춘몽팻(이재호), 풍경소리 듣고 오는 풍물(조미연), 자개 머리핀(박은미), 내만의 열쇠집(변수봉), 호박브로찌 (신덕순)이며, 오

지역 매아리

남원소방서, 식용유 화재방지 주방용 소화기 비치 추진

남원소방서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용유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응력이 우수한 K급 소화기의 비치의무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의무가 최근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에 강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식용유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초기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K급소화기로의 적절한 대응만이 피해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직장 문화배달 사업 각광

순창군이 직장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에 나섰다.

군은 지난 17일 영농조합법인 비엔푸드를 찾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직장 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해 통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등 3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직장 문화배달사업’은 직장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의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문화공연을 근로자들간 소통과 기분전환의 계기로 삼아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폭설 등으로 주택 파손되는 나무제거에 나섰다.

순창군, 재해위험수목 제거 총력

순창군이 강풍·태풍·폭설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주택이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수목 제거에 나섰다.

올 상반기에 104건 200주의 재해위험수목 제거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위험수목 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정비를 위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